



고대의료원이 다시쓰는 아이티 이야기

매일 수백명의 환자 몰려들어 인산인해, 수술만 20건 집도해...
고대의료팀 제왕절개수술 장면 전국에 보도되어 격려 쇄도



한국서 수술장비 공수해 아이티 현장의 중증질환 치료 성과물려

고려대의료원(본부총장 손창성) 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승주)이 고공과 슬픔의 중남미 작은 섬나라 아이티에서 12일간의 사랑의 인상을 떨치고 돌아왔다.

지난 1월 19일 떠난 봉사단은 매일 수백명의 환자들이 몰려들어 아예 진료소 근처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봉사기간 동안 20여 명의 중증질환자 수술과 1명의 제왕절개수술을 포함, 1,000여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성과를 보였다. 19일 아침, 인산공황을 떠난지 이틀만에 도착한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는 아직 지진이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다. 베이스 캠프로 삼은 진료소는 지진때 조금 금이간 개인병원인데, 전기가 끊어지고 건물속 바닥과 창틀이 진흙과 먼지로 자욱했다. 아이티를 뒤흔든 지진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침대 없는 병실이 많아 환자들이 병원 이곳저곳에 그냥 누워 있었다. 외상환자, 특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골절환자가 많았고, 오랜 난민촌 생활과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여성질환과 피부염, 인후두염 환자도 수를 셀 수 없이 많았다. 수 많은 환자들은 길거리와 병원 밖 천막에 누워 자신의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천막에도 들어갈 수 없는 팔 · 다리가 잘린 환자들은 어떻게든 치료받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고려대의료원 해외의료봉사단은 하루에도 수 백명씩 몰려드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특히, 진료를 시작한 셋째날에는 아이티에서의 봉사기간동안 경이로운 일이 생겼다. 정상분만이 어렵던 산모에게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해 여아를 순산한 것이다. 찾아오는 환자만 돌볼 수 없어 봉사단은 지진피해가 극심한 난민촌으로 왕진을 다니기도 했다. 파리가 얼굴에서 득실거리고, 뱀새가 몸을 찌르는 흙먼지가 자욱한 누런 텐트속은 울음줄방울 흘리고있는 아이들로 가득했다. 그곳에서 일주일동안 아무것도 먹지못해 탈수증세를 보였던 생후 2개월여된 아이에게 수액을 달아 고려대의료원 진료캠프로 이송해 집중치료 후 상태를 호전시켜 뒤를 이은 한국의료봉사단에 인계했다.

계속되는 여진에도 따뜻한 '인술' 실천 현지에도 큰 호응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 20일 새벽에는 진도 6.1 규모의 지진이 또 다시 엄습해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다시 공포로 몰아넣기도 했다. 고려대의료원 해외봉사단은 얼마지켜 개인 병원에서 아침 진료를 보고 있었는데, 수 심명에 이르른 주민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 다시 지진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모두 대피한 것이었다. 지속적인 우여곡절 속에도 봉사단은 1,000여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하며 외상 및 탈장환자를 포함한 20건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했으며,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아이티 지역병원에 의약품과 의료소모품 등 일체를 기증했다.

김승주 단장은 "수 많은 아이티 환자들을 다룬 의료팀에 인계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매우 무거웠다. 천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지만 이젠 시작에 불과하기에 이들에게 지속적인 치료의 손길이 이어지길 바랄 뿐"이라며 "의료봉사 기간동안 한국의료팀이 잘 고치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회고했다.

안암병원 이식혈관과와 박관태 교수는 "해외의료봉사를 많이 다녀왔지만 이번과 같이 참담한 상황은 처음이다. 환자를 아무리 받아도 끝이 나지 않는 행렬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우리 진료소를 찾아온 환자들의 간절한 눈빛에, 정말 최선을 다해 치료해 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손창성 의무부총장은 "나눔과 봉사는 고려대의료원의 핵심가치 중 하나다. 고대병원은 이번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쓰나미, 파키스탄 대지진, 인도네시아 화산폭발 현장 등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다녀왔다. 향후에도 지구촌의 아픔을 가장먼저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관계자 기부기부

윤혜자	교우	₩ 2,400,000
김민기	교우	₩ 1,200,000
양재택	교우	₩ 1,200,000
이정혜	교우	₩ 1,000,000
설홍수	교우	₩ 6,000,000
이창범	교우	₩ 6,000,000
최선영	교우	₩ 1,200,000
이옥식	교우	₩ 3,600,000
김대업	교우	₩ 6,000,000
윤재환	교우	₩ 1,200,000
김영호	교우	₩ 1,200,000

박영우	교우	₩ 600,000
한성구	교우	₩ 1,200,000
윤홍노	교우	₩ 6,000,000
이명주	예방의학교실	₩ 2,000,000
신가림	기업체	₩ 30,000,000
김해준	교수	₩ 12,000,000
우그래미	법의학연구소	₩ 60,000,000
남경애	교우	₩ 200,000,000
손창성	교수	₩ 1,000,000
김도완	치의학연구소	₩ 5,000,000
합계		₩ 348,800,000




고려대 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획득한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병원입니다.

[고려대의료원이 다시쓰는 아이티 이야기]

한국의료봉사단 사상 첫, 제왕절개수술로 여아탄생 개가

아이 울음 터지자 의료진도 환호성 질러 한국인술이 아이티 살렸다! 절망 속에서도 새 생명 피어

마취기구와 수술장비가 턱 없이 부족한 아이티 지진현장에서 한국의료진에 의해 제왕절개수술로 여아가 탄생했다. 미담의 주인공은 바로 고려대 안암병원 이식혈관외과 박관태 교수. 당시 그는 국내서 단일 의료기관으로서 처음 아이티에 파견됐. 진료중이었던 고려대의료원 의료봉사단의 일원이다.

고려대의료원 아이티 해외의료봉사단은 진료 둘째날인 지난 1월 24일 새벽 5시 50분쯤 국제 의료캠프 내의 독일 의료진으로부터 제왕절개수술을 집도 할 수 있는 외과의사가 급히 필요하다는 전갈을 받았다. "어제 저녁부터 진통이 시작됐다. 분만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한데, 수술할 산부인과 의사가 없다" 는 내용이었다.

박관태 교수는 급히 준비한 후 10여 분의 인근 병원에 도착했다. 박 교수는 혈관이식 전문의로 고난도의 혈관수술은 수없이 해치곤 있었지만 분만수술을 해본 적이 없었다. 비포장 길의 뒷길에는 트럭에 앉아, 산부인과 의사(전문의 정수경)인 부인에게 국제전화를 걸었다. 부인과의 긴급 통화에서 수술과정을 머리에 입력시켰다. 숨이 막힐듯한 짧은 긴장감이 별도의 순간이었다. 어둡고 비좁아터진 허름한 수술방. 어두컴컴한 수술방 앞에서 한국, 미국, 독일 의사와 간호사들간에 긴박한 말이 쉴새 없이 오갔다. 처음에 자신만만했던 미국 가정의학 전문의인 케빈은 직접 제왕절개술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수술 보조는 자신 있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독일인 의사는 마취가 전공이라 마취를 맡았다. 또 미국인 조산사인 여자 한명, 그리고 의료봉사단의 일원인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박중훈 교수와 안암병원 기지영 수술실 간호사 등이 한 팀이 되어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렸다. 이제 남은 건, 결단 뿐. 머무는 시간도 도망갈 곳도 없었다. 오직 앞으로 나갈 길 뿐이다. 마취기구도 없어 전신마취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수술용 재료도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은,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박관태 교수는 "미국 독일 등 각국 의사가 힘을 모아 아기와 산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던지고는 제왕절개술을 시작했다. 속박



제왕절개수술로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박관태 교수

하던 순간이 흘렀다. 수술후 약 40분쯤 경과 후 마침내 여자 아기가 세상에 나왔다. 아기는 울음을 터트렸고 의료진은 환호성을 질렀다. 아이티 한국의료봉사단 파견사상 첫 아기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여아를 순산한 마르타(32세)와 그의 가족은 한국의료팀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구사일생으로 어렵게 두 번째 아기를 얻은 것에 대한 경이로움을 표현했다.

박관태 교수는 "워낙 다급한 상황에서서 아이와 산모를 살려야 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미국 독일 등과 순식간에 다국적팀을 만들어 산모와 아이를 구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아기의 울음이 터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환호성이 터졌다" 고 당시의 상황을 회상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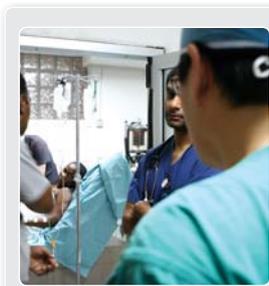


사진 설명 : 급박했던 분만수술 장면,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와 회복중인 산모 등

"생명의 진료소"

특 집

마사이 원주민에 건강 선물한 고려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생명의 진료소'가 마사이족을 치료하며 인술을 펼치고 있다.

생명의 진료소 매일 100여명 치료,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응받아 NAVER 통해 관련 영상과 사진 공개

고려대의료원이 최근 케냐 남서부의 마사이 마라 지역에서 '생명의 진료소(소장 최재욱)'를 열고 인술을 실천한 다큐멘터리 영상과 사진이 1월 19일(화) 오전 11시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공개되었다. 고대의대 예방의학 교실 최재욱 교수, 안암병원 이식혈관외과 박관태 교수, 내과 중환자실 김영하 간호사로 구성된 봉사단은 지난해 11월 6일 까지 9일간 매일 100여명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다.

에이즈는 물론 기초적인 질병조차 보살피지 못해 안타깝게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의료현실은 의료봉사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환자들 중에는 사자와 싸우다 허리를 다친 노인, 탈장으로 고환이 아이 열등 말하게 부풀어 오른 노인, 성인식 때 하는 할례를 흉내 내다가 고환이 속으로 쏠아 들어간 소년까지 매우 다양했다. 너무나 가슴 아팠던 일은 고환 염증으로 고생하는 소년, 포경수술만 하면 저절로 나올 병인데 아직 성인(마사이족의 성년은 15세)가 안됐다는 이유로 부모가 수술을 거부해 항생제 투약으로 염종치료를 대신해야만 했다. 의료봉

사단은 전기시설 없이도 외과적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아프리카의 현실을 고려해 특수 장비세트를 가지고 출국했으며, 의료진은 이 장비를 활용하여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떤 곳든 방문하여 치료를 시행하였다. 대중 교통시설이라고는 전무하고 진료소에서 20여 km 이상 떨어진 마사이족 부락을 직접 방문하여 야전 외과 수술과 내과 진료를 케냐의 초원위에서 실시했다.

크고 작은 부상과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지만 사방 20km미터 안에 의료시설이라고는 허름한 보건소 하나가 전부다. 그나마 돈 없는 마사이 마라에게는 무용지물이어서 무료치료가 가능한 이번 '생명의 진료소'는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사실, 마사이족이 유목생활을 고집하는 대가는 매우 혹독하다. 더욱이 수년간의 가뭄과 기근으로 대초원의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열악한 환경이 아프리카의 현실이다. 이에 '생명의 진료소'는 일회성의 무료진료 사업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건강안 환경 만들기' 사

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하여 마사이족 부락과 주변환경에 대한 현장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마사이 부락의 음용수, 주거환경, 영양상태 및 위생 상태에 대한 지역사회 보건조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마사이족 지역사회 보건조사 결과는 국내 아프리카 지원기관과 진료봉사기관들에게 향후 "지속가능한 건강안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엔 촬영된 뛰어난 감각적 사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중만 사진작가의 작품이며, 영상 또한 다류형식으로 제작되어 아프리카의 순수한 영혼을 아름답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한편, 고대의료원은 스페인령,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재난지역 해외의료봉사를 국제적으로 활발히 펼쳐오고 있으며, 지난 1월 19일 대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티에 의료봉사단을 급파해 인류애를 실천하기도 했다. 

고대의대 남경애 교우, 모교에 2억 쾌척 18회 동기회도 모교에 8천여만 원 기부



고려대 의과대학 18회 졸업생 남경애(75, 前야세이산부인과 원장) 교우가 지난 1월 25일 모교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2억 원을 기부했다. 이와 함께 고대의대 18회 동기회도 심심일반으로 모은 8천여만 원을 함께 기부했다. 남경애 교우는 이날 오후 2시 고대 총장실에서 가진 고

대의학발전기금 기부식에서 "오랜만에 학교를 찾은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학교의 눈부신 발전이 너무 놀랍고 가슴 뿌듯하기만 하다. 졸업한지 50여년이 흘렀지만 학교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경애 교우가 속한 18회 의대동기회(회장 윤병주) 60여명도 개인이 심심일반으로 모은 7,630만원을 의학발전기금과 장학금으로 써 달라며 선뜻 내놓았다. 18회 동기회는 이전부터 통 큰 기부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모교발전을 위한 강력한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 동기회 회장인 윤병주 교우가 그동안 총 1억 7천 5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故 김재각 교우가 1억 3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동기회가 이제껏 기부한 금액만도 5억여 원에 이른다. **▶**

고객만족! 우리가 책임진다.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손창성)친절리더팀은 2010년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울왕리 골든스카이 리조트에서 '의료인 친절리더 교육 및 발전방향 토론'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3개 병원 친절리더 70명이 참여하여 '감성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교육 받았고, 특히 저녁 7

시 CEO 특강에서는 손창성 의무부총장의 강의가 있었다. 손창성 부총장은 강의를 통해 디즈니 병원의 서비스 리더십에 대하여 강조 하며, "친절리더가 진정한 허리가 되어 신나고 즐거운 병원 직장 문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고, 모든 직원과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의 창구도 조만간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김우경 구로병원장, 최재원 안암병원장, 이기형 안암병원 기획실장, 김미려 구로병원 교육수련부장, 김병균 사무국장 등 주요 보직자가 참여해 친절리더 발전 방안과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

신규 간호사와 동고동락(同苦同樂)

간호부(부장 이은숙)는 1월 22일 병원 인근 호프집에서 신규간호사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선했다. 병원에 입사한 지 1~2개월 된 신규 간호사 16명을 초청해 그간의 고충과 애환을 내려놓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병동에서의 황당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에서부터 현재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생각부터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꿈과 포부까지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호부는 이러한 '신규 간호사와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타이틀로 정기적으로 개최해 신규 간



호사들의 고충과 애사사항을 청취해 신바람 나는 병원 분위기를 창출하고, 간호사들의 애사심을 높이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간호사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

당뇨극복! 같이 한번 해보자



의료원 소아청소년 당뇨교실(위원장 이기형 교수)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양평 미리내캠프에서 2009 동계 소아청소년 당뇨캠프 '같이 한번 해보자'를 진행했다. 소아청소년 당뇨캠프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이번이 4회째다. 2박 3일간 전 문 의료진의 맞춤교육과 치료 레크리에이

션 등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번 캠프에는 당뇨환아 35명과 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영양사, 치료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원봉사자 등 총 72명의 환아와 스태프들이 참여했고, 당뇨관리 교육과 치료 레크리에이션이 함께 이뤄졌다. 한편, 고려대의료원 소아청소년 당뇨교실은 안암, 구로, 안산병원에서 정기적인 당뇨교육과 분기별로 가족과 함께하는 일일 당뇨캠프 등 다채로운 교육과 이벤트로 아이들의 당뇨극복 의지를 북돋고 있다. **▶**

안암병원 53병동, 대학생이 전하는 해피바이러스

안암병원은 1월 18일 오후 1시에 SK Telecom 대학생봉사단 써니(SUNNY)와 함께 53병동 환아들에게 희망을 전달했다. 안암병원 소아병동에 대학생자원봉사단 써니(SUNNY)가 방문했다. 봉사단은 준비한 선물과 연극을 통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환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했다. 키가 큰 봉사단원이 착용해 2미터 크기가 된 인기캐릭터 '뽀로로'를 보고 무서워하던 환아들, 자신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그 따뜻한 마음을 느꼈는지 어느새 가까워졌다. 53병동 오영



옥 수간호사는 "환아들이 잠시나마 아픔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봉사단의 방문에 감사를 표했고 "모두 건강하게 자라서 사랑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고대 안암병원 김훈업 교수 로봇 부신수술 첫 도입



최근 큰 부종이던 20대의 한 청년이 간헐적으로 급격히 오르는 혈압 때문에 조기전력을 했다. 인원은 0.7cm 크기의 부신 갈색세포종. 작은 크기의 종양이었지만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당장이라도 급사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 갈색세포종은 신장 위에 위치한 부신에 주로 발생하며, 자극을 받으면 특정 호르몬을 분비해 순간적으로 혈압의 혈압을 200~300mmHg 이상으로 치솟게 해 뇌졸중 등을 유발

하는 극히 위험한 질환이다. 이 종양은 외과적 수술로 부신을 제거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부신이 해부학적으로 체내 깊숙이 위치하며 혈류량이 매우 많아 수술 중 과다 출혈의 위험성이 큰 뿐만 아니라, 특히 갈색세포종의 경우 수술 과정에서 자칫 종양을 자극하면 급격한 혈압상승을 유발하여 뇌졸중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할 수 있다.

최근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김창덕) 로봇수술센터 김훈업 교수는 안암병원 최초로 갈색세포종 환자 2명과 쿠싱증후군 환자 1명 등 기능성 부신 종양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부신절거술에 로봇수술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환자들을 완치시켰다. 로봇수술기기가 다빈치-S의 확대된 3D영상상을 통한 정교한

수술은 종양 자극 및 출혈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수술 시간단축과 절개부위 최소화로 환자 회복이 빨라지는 등 로봇수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김훈업 교수는 "수십 배 확대된 입체화면을 통한 정밀한 로봇 수술은 이런 위험한 수술에 매우 적합"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위에 로봇수술을 도입해 환자들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는 3D 시뮬레이션 교육으로 로봇수술 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았고, 다양한 분야로 로봇수술의 영역을 확대하는 등 로봇수술분야 최고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

방송보다 생생한 작가들의 의료현장 체험 의료체험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 전달기기



인양병원에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유명 방송작가들이 찾았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국민과학지식향상위원회(이하 지향위, 위원장 김형규)는 고려대 안양병원 8층 대강당에서 21일 오후 2시 30분 방송작가들을 대상으로 '제3회 방송작가 의료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방송작가들

고차 미련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항에 지휘위 부위원장, 이은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창덕 고대 안양병원장 등 의협 및 방송작가협회, 병원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의료현장 체험 소개와 함께 곧바로 체험에 나선 30여 명의 방송작가들은 고대 안양병원의 의료진에 따라 세 계조로 나누어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의료센터, 심혈관센터, 인공신장실 등의 의료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방송작가들은 실제 병원 속을 들어가다보면 최첨단 의료장비와 의료시스템 등을 살폈으며, 응급의료센터에서 직접 CPR을 해보는가 하면 수술복, 수술용 마스크를 갖추고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 장면을 참관하기도 했다. 현장체험 후 방송작가들과 의료진들은 직접 저녁만찬과 함께 발표자료, 견학 등을 통해 궁금한 점에 대해 심도 있는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

이 의료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

2010년 주간호사 Workshop 성료

간호부는 지난 1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간호부장, 간호팀장 및 수간호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사가 웃어야 병원이 행복하다' 라는 주제로 수간호사 workshop을 개최했다. 김창덕 안양병원장의 방문과 격려로 더욱 뜻깊고 따뜻한 화합의 장이 되었던 이번 수간호사 workshop에서는 연필게임을 통한 원-원 전략으로 감성 리더십에 대한 개별적인 도입전개를 시작으로 플라쥬(Collage) 기법을 통한 감성리더십의 4가지 측면에 대해 조별 활동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과 함께 이에 대한 실천 행동전략을 각 측면당 4개씩을 도출하여 총 16개의 실천전략을 완성했다. 이은숙 간호부장은 "간호사가 행복해야 병원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



다"면서 "이번 수간호사 Workshop에서 완성한 '행복'이라는 핵심가치를 골자로 한 감성리더십을 통해 부시원의 감성을 파악해 구성원간의 친화와 단결을 도모함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까지 높여나갈기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양병원 간호부는 이번 workshop에서 수립한 실천전략 중 12가지 사업을 간호부 연간사업으로 설정하고 매달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

성북구 간호사회 제15회 정기총회 개최

성북구간호사회(회장 조운수, 안양병원 이호관리팀장)는 1월 20일 안양병원 8층 대회의실에서 제1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약 150여명의 성북구 간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제1부 특강과 제2부 총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의사소통을 통한 캠퍼 만들기"란 주제로 김린 정신과 교수의 특강이 이루어졌다. 이번 특강은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들과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2부 총회에서는 2009년 사업시행 결과 및 결산보고와 2010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등이 다루어졌다. 2009년도의 사업시행내용으로는 성북



구 관내 노인정을 대상으로 혈압 및 혈당측정과 건강상담 등을 실시한 "어르신과 더불어 행사"와 독거노인 방문 봉사활동, 서울 지하철 고려대역사에서 실시한 금연홍보 및 예방담 조기발견 캠페인,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이 있으며 2010년도에도 이런 다양한 사업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끊임없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

장기기증자 및 신장이식인의 날 성료



인양병원은 1월 5일 오후 1시 병원 대강당에서 '2009년도 장기기증자 및 신장이식인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창덕 안양병원장과 장기기이식센터 신경 센터장, 박관태 부센터장, 신장내과 김형규 교수

등 관계자와 300여 명의 환자 및 보호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 중에는 장기기증자와 신장이식인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축하공연으로 가수 김수진 씨가 희망과 축복의 노래를 선사했고, 마술사 이은결 씨는 세계최고 수준의 마술쇼를 보여 줬다. 김창덕 병원장은 "장기기이식센터는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라며 "장기기이식센터의 훌륭한 신생님들 덕분에 안양병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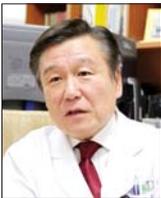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안양병원은 1월 28일 오후 4시에 8층 대회의실에서 'SBS-중외제약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SBS 오케스트라, 비바보제(성악), 카메이즈(성보컬), 현숙(가수) 등이 출연했고, 약 400여명의 환자와 보호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SBS 오케스트라 김정택 단장은 "즐거움 음악과 공연을 통해 모든 환우들이 즐거움과 웃음을 얻을길 바란다"며 환자들을 격려했고, 음악회에 참석한 한 환우는 "음악과 함께 잠시나



마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기뻐했다. 한편, 안양병원은 환자들이 병마와 싸우면서 생긴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될 수 있도록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국내 응급의학의 시초 高大 洪윤식 교수, '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



응급의료센터 홍윤식 교수(洪允植, 사진)가 국내 최고 권위와 위상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홍윤식 교수는 90년대 초 국내 최초로 응급의학이란 학문을 도입해 학회설립 및 병원내 전문센터를 개소한 장본인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응급의학 발전을 선도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중요성 인식시키며 응급학과 전문의 등 응급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국가 응급의료시스템 체계화를 이끌었다. 특히, 홍 교수는 국내 최초로 美 응급의학회 명예회원, 국

제응급의학회 이사로 선출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등 국제적인 권위를 자랑하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 응급의학의 위상을 널리 떨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 교수는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회원으로서 앞으로 의학연구 및 교육에 관련된 정책수립, 국가 의료정책에 대한 건의, 평가 및 자문, 의학의 장기 연구개발, 의학 관련 학술상, 국제교류 등의 학술활동을 지원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대한민국의학한림원(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은 한국 의학의 지적혁신 전후 창달과 선진화를 선도하며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해 온 단체로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의 최고 석학들만이 활동하고 있다. ㉠

스페셜 리포트 1

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 사체간이식 성공 _ 간담체외과 김동식 교수



간담체외과 김동식 교수

평소 건강한 체질로 장병치레도 안하던 김명영 씨(45, 가명)는 갑작스런 몸의 이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후 본원으로 의뢰돼 사체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병명은 전격성 간염. 썩과 술을 함께 먹은 것이 간을 못 쓰게 만든 원인이었다. 다행히 이식에 적합한 기

요한 환자의 경우 다른 주요 장기까지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 수술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며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환자에 비해 기증자가 적어 많은 수의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동식 교수는 고려대의대에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 후 서울아산병원 임상강사를 거쳐 미인시내리대학 북부장기이식외과 교수로 활약하다 2009년 가을 고대안암병원에 합류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식외과의사협회(ASTS)정회원, 국제 간이식협회(ILTS) 정회원, 미국 간질환

연구회(AASLD) 정회원 등으로 활동하며 왕성한 역량을 발휘해왔다. 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장기 기증자의 고귀한 생명 나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 인 프라화중, 내·외과분야 거의 전 영역의 의료진과의 협력은 물론, 특화된 수술팀, 전문코디네이터 등과의 팀워크를 통해 장기이식 분야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다. ⑤

문의 | 장기이식센터 코디네이터 02) 920-6858

증자를 찾아 다른 장기의 손상이 심해지기 전에 이식을 받을 수 있었다. 기증자를 찾지 못했다면 수술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김 씨를 생사의 기로에 서게 한 전격성 간염은 주로 바이러스의 감염, 약물과다복용, 독소 등에 의해 발생한다. 김 씨의 경우 썩과 술의 과다 섭취로 인해 간이 중독됐고 곧 전격성 간염으로 악화돼 회복될 수 없는 단계가 됐다.

환자가 간이식을 받아야하는 상태가 되면 간 기능의 저하에 따라 온몸에 독소가 퍼져 다른 모든 장기가 손상을 입게 되므로 환자의 상태가 극히 안 좋아 수술이 매우 까다롭다. 이번에 성공한 수술은 사체간이식으로 뇌사상태인 공여자의 간을 수혜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이다.

수술을 집도한 장기이식센터 김동식 교수는 "간이식이 필



김동식(왼쪽) 원장에서 사체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이수받으며 새 삶을 얻게된 김명영(앞줄) 원장에서 두번째(가운데)씨

스페셜 리포트 2

이비인후과 음성언어클리닉 _ 이비인후과 정은재 교수



이비인후과 정은재 교수

사람의 목소리는 발생기관인 폐, 후두, 인두강, 구강, 입술에 의해 만들어진다. 발생기관 중 진동기인 후두는 소리를 만드는 것 뿐 아니라 삼킨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문 역할과 호흡 시 공기의 통로 역할을 한다. 후두 중에서 부드러운 짐작 조직으로 구성된 성대는 공기가 지나갈 때 진동을 유발해 소리를 만들고 공명기를 통하면서 개인의 해부학적 특징에 따라 음색과 음질이 결정된다. 이 발생기관중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음성장애를 겪게 된다.

고려대 안암병원 음성언어클리닉은 음성이나 언어의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특수클리닉이다. 음성클리닉에서 제공하는 맞춤치료프로그램과 음성위생 교육, 호흡조절과 호흡유지, 구강공명 훈련, 근 이완훈련, 수술적 치료 등 체계적인 클리닉으로 음성을 되찾을 수 있다.

음성언어클리닉에서 다루는 질환은 생각 외로 광범위한데, 성대결절, 폴립, 성대내낭종등의 성대질환은 물론이고 해부학적이거나 기능적으로 정상적인 성대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음성의 오용과 남용의 결과 또는 잘못된 보성기능으로 발생장애를 유발하는 기능성 발생장애, 경련성 발생장애, 중추 및 말초신경질환으로 발생한 언어장애, 소아 음성장애,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연하장애 등이 포함된다.

음성언어클리닉이 확대되면서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이 있다. ▲예전에는 주로 수술이 필요했던 성대결절 등의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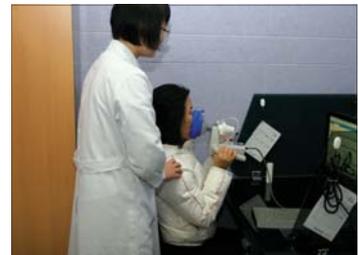
기능성 음성장애를 비수술적 음성치료를 통해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치료가 힘들었던 소아음성장애 환자를 선도적으로 치료하고 있고 ▲ 성대내비반자를 치료할 때 주로 이용되던 감성연골 성형술 등의 침습적 수술이 간단한 경피적 성대성형술로도 가능해졌으며 결과 또한 우수하다. ▲경련성발성장애는 치료가 어려웠으나 성대내 보톡스 주입을 통해 치료가 가능해졌고 ▲ 식도질환에 따른 인두이물감을 외래에서 경피식도 내시경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연하장애에 대해 기존에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하던 비디오투시연하검사와 더불어 연하내시경검사를 도입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성대진동검사, 후두스트로보검사, 음향검사, 청각심리검사와의 최신장비를 통한 음성분석검사와 음성언어클리닉의 치료결과를 왕성하게 발표하고 있다.

안암병원 음성언어클리닉 정은재 교수는 "음성장애의 원인적 요소를 확인하고 개개인의 발생패턴에 대한 분석

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교정함으로써 음성을 되찾는 획기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예전에는 회복이 어렵거나 침습적 수술이 불가했던 치료가 간단한 시술로도 가능해지는 등 끊임없는 의료기술의 개발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음성언어클리닉에서는 전문적으로 목소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인관리시스템과 Professional Voice User Clinic도 운영되고 있다. 가수, 성악가, 국악인, 뮤지컬배우, 연극인, 아나운서 등 일반인들과는 다른 진단 및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음성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연구 개발 하고 있다. ⑤

도움말 | 이비인후과 음성언어클리닉 정은재 교수
문의 | 음성언어클리닉 02) 920-6858



음성장애 척도를 검사하고있는 의료진과 환자

